

방송반 난 그 매력에 푹~ 빠졌어요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방송반 탐방



협재 각 학년 방송부 국장을 맡고 있는 이경준(17.좌) 송성민(18.우) 학생

방송시설이 된 스튜디오로 들어가자 기자의 목소리가 입 안에서 맴도는 듯 했다. 인천에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는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이하부고) 방송실.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자 스튜디오에는 방송부원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총 23명으로 구성된 이하부고 방송반(지도교사 정현식, 49)은 벌써 38기를 맞았을 정도로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이하부고 방송반이 특히 자랑으로 여기는 점은 타학교와 비교되는 장비. 송출기만 설치하면 일반 케이블 방송 정도의 방송이 가능할 정도라는 그들의 장비는 타 학교의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3학년 국장을 맡고 있는 송성민 학생(18)은 중학교 때부

터 목소리가 좋다는 소리를 들어 방송부를 택하게 됐다고 말한다. 그는 “방송부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학교 내외에서 느끼는 것이 크다”며 “마치 학교의 대표 동아리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한다. 특히 방송부원들은 좌담회나 방송제 같은 행사를 선생님의 도움없이 해냈을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이들의 끼는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인천시 영상제에 동영상 출품해 수상을 하는 기쁨을 토하기도 했다. 당시 출품했던 작품은 ‘방송국장’의 자리를 놓고 벌이는



에피소드를 담은 것인데 청소년들의 기발함에 심사위원들이 관심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하는 자평(?)을 하기도 했다. 방송반에 있어 좋은 점에 대해 박태규 학생(17)은 “1 2 3학년이 함께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다는 일이 흔하지 않은 데 이곳에서는 가능하다”며 “친한 선배가 생기는 것이 이 동아리의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석호 학생(18)은 “국장과 같은 직책을 맡게 되면 리더십 같은 것이 생기게

돼 나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석호 학생은 기억에 남을 만한 큰 사건(?)을 만들기도 했다. 학교 축제 당시 축하공연 중 음악을 끊어버리는 만행(?)을 벌이기도 했다. 지금이야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앞이 안보일 정도로 막막했었다고... 이 곳 방송부는 신입부원을 3월 한달동안 선발한다. 평균 2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다른 동아리보다는 인기가 높다. 부원이 선발되면 약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인 방송에 참여하게 된다. 현재 방송부원들은 미래에도 방송부와 연관된 동아리를 계속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나아가 방송직종에도 종사해보고 싶다는 이들도 많았다. “고등학교에는 오로지 공부로만 사람을 판단하려고 해요. 하지만 어떠한 특수한 분야에서 능력을 보인다면 그 것을 장려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의지한 말로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이경준 학생(17)은 개개인의 능력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들의 도전은 아직 진행형이다. 언제 어디서든지 서로간의 끈끈한 정을 통해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이하부고 방송반의 도전정신이 더욱 기대된다. 권내영 홍성민기자 hsi@eduyonhap.com

학생들과 함께한 시간 즐겁습니다

이하부고 방송반 담임교사 정현식 선생님

이하부고 방송반을 근 10년 넘게 지도해오고 있는 정현식(49.기술과목) 선생님. 그는 학생들과 같이 해온 시간을 즐거움으로 느끼고 있는 듯 했다. 특히 학생들이 갖고 있는 추억들을 공유하고 있을 정도로 방송부원들과의 친화력도 강했다. - 방송반에 가입함에 있어 득과 실이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실이 되었다는 것보다 득이 되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생활에 관리만 잘한다면 경험이 많이 되는 편이고

무엇보다 선후배 관계에 굉장한 돈독함이 생깁니다. - 방송반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점과 선생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의 느낌이 어떤지? > 방송이라는 것이 바로바로 노출이 되어 실수를 하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이들도 무척이나 신경 쓰지만 지도자의 입장에서 매번 격정이 되지요. 큰 행사가 있을 때면 항상 우려와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런 면에서 방송은 잘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실수하면 욕

먹기 십상이기에 미안하고 매우 장비를 짊어지고 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힘든 고비를 지나면 그때는 자신들이 이룬 성과와 방송반에 든 정이 있어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고비만 잘 넘기면 성취감이 대단하거든요. - 기억에 남는 방송 사고가 있다면? > 방송제 때 시네마 키드라는 영화를 보는 중간에 교감선생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청소년이 보기에는 민망한 장면을 보



시고는 결연쩍어 하시며 나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난감하던지... 지금은 비디오 테잎이 구시대적 유품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방송실에서 19금 비디오 테잎을 보다가 걸러서 혼나던 일들도 흔하다면 흔했겠고요. 크고 작은 에피소드가 많지요. 아! 그런 기억도 있네요. 수

학여행 때 앨범을 가져갔다가 1차 숙소에서 놓고와서 다시 그것을 가지러 간 일도 있습니다. - 현재의 학생들과 과거의 학생들을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 옛날 학생들은 박력과 결속력이 있었죠. 근성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까요? 그런 면에서 요즘 친구들은 요령 부리는 면이 좀 있고요, 도전 정신이 부족한 면도 가끔 느낄 수가 있습니다. -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다면? > 졸업생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앞을 못 보게 된 친구가 있어요. 중환자실까지 들어 갔었는데 후배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찾더라고요. 해서 방송반 아이들과 함께 그 친구 병실로

찾아 갔었어요. 그 이후 아이들이 낯바가 많았지요. 선후배의 결속력이 더욱 돈독해진 것은 무말할 것 없습니. 선후배가 만나 카메까지 개설하면서 대단한 활성화를 불러 일으켰어요. 지금도 신입생들이 들어 오거나 방송제같은 행사가 매년 있을 때마다 직접 찾아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 학생들과 사적으로 편안한 자리를 가지시는 경우가 있는지요? > 특별히 따로 불러내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방송제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방과 후에 함께 밥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무엇인가요? > 학생들이 뭐라든 저는 언

제나 자장면 곱빼기를 사줍니다. (웃음) 졸업생들과는 술을 함께 할 경우도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는 10여년 가까운 시간동안 방송반을 해오셨는데, 방송반 일이 힘들지 않은지요? 언제까지 하겠다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 어린 학생들에게 활기와 열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젊은 선생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소위말해 3D 업종이다 그래가지고(웃음) 선생님들께서도 방송진행이나 장비에 관해서 속지하시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시니까 섣부름 나서지도 못하시고 제가 주욱하고 있죠. 사실 중간에 2-3년 떠난적이 있지만, 다시금 돌아왔구요. 저는 현재 만족하고 있습니다. 권내영 기자 kny@eduyonhap.com

한국 사랑 “한국어로 배워요”

인천여성문화회관 결혼이민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

“한국을 더 알고 사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인천여성문화회관에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어 수업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한국어 교육은 기초, 초급, 중급으로 나뉘어 일주일에 각 급별로 4시간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각 급별로 약 20-30명의 인원이 수업을 받고 있고, 그들의 분위기가 뜨겁다. 외국인으로써 낯선 한국 땅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언어’. 여성문화회관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단순히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문화, 그리고 자국의 문화를 교육생 상호간에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친목적인 성격이 같이 가져가고 있다. 이곳에서 수업받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동양권 사람들. 국내에 국제결혼이 활성화되면서 정착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카자흐스탄 출신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 아나타(37)씨는 이 곳에서 2년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말한다. 그는 이 수업을 통해 이제는 통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됐다고 한다. 또한, 그는 한국어를 배움으로 인해 주변 한국인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급반 수강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정하나 선생(28. 경인여자대학 국제교육원)은 1차적인 업무는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이민여성들의 상담자의 역할을 할 때도 있다. 그는 “이 곳에서 수강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아무래도 자국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들이 마음을 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곳 인천광역시 여성문화회관에서는 ‘다문화나눔축제’ 등을 통해 상호간의 문화를 교류하는 장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금년에는 결혼이민여성들의



배우자를 상대로 배우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자칫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오해들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에 있을 인천세계도시축전 시에 수강생들을 자원봉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할 예정이다.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결혼이민자들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면을 감안할 때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은 한국을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권내영 기자 news@eduyonhap.com

학생들의 즐거움과 교사의 열정이 함께

포천 방과후학교

경기도포천교육청(오정순 교육장)이 주최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장이 주최하는 방과후학교 담당자 워크숍이 5월 8일부터 9일까지 Kobaco 연구원에서 관내 초, 중, 고 방과후학교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연수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하며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워크숍에 참석한 김봉길 학무과장은 인사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은 담당 교사의 능력에 좌우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연수를 통해 포천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방과후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포천 교육가족이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워크숍에 강사로 초빙

된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담당 한승덕 장학관은 “2009학년도 방과후학교 정책”에 대해 강의하여 담당교사들이 방과후학교에 대한 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사례”로는 신리초 김영모 교장이,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사례”는 예봉초 황성택 교장이, “방과후보육프로그램의 운영사례”는 삼삼초 김정숙 교사가 열강을 해 주었고 포천방과후학교 지원센터장 황규열 교장은 중, 고교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자유수강권제도 운영에 대해 강의해주어, 이번 연수 참석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워크숍에 참가한 P중학교 L 교사는 “정확 예산을 받아도 활용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 lkt@eduyonhap.com